

다 함 교 회

셀 예배 교안 · 솔로몬의 성전 건축 (4)

영광이 머무는 자리

열왕기상 8:1-11

셀 · 목장 모임용 · 약 60분

◆ 인도자를 위한 안내

이번 주 핵심 메시지

솔로몬의 웅장한 성전도, 영광이 임하기 전까지는 ‘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빈 상자’였습니다. 한 장소와 한 인생의 참된 가치는 화려함이나 규모가 아니라,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가로 결정됩니다.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가르칩니다. ① 두려움·의무감이 아니라 은혜와 감사로 드리는 예배(1-5절), ② 성전에 갇히지 않고 채를 빼지 않으신 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(6-8절), ③ 우리 죄의 기록을 다 아시면서도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심과, 그 위에 뿌려진 그리스도의 피(9절), 그리고 마침내 영광이 참 가치를 결정함(10-11절).

▷ 인도 팁

- 정답을 맞히는 시간이 아니라, 각자 삶으로 정직하게 반응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세요.
- 관찰(무엇을 말하나) → 해석(왜 그런가) → 적용(내 삶은?)의 흐름으로 이끌어 주세요.
- 나눔이 어려운 지체는 재촉하지 말고, 인도자가 먼저 자기 이야기를 짧게 열어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.

◆ ① 마음 문 열기 (10 분)

최근 한 달을 돌아볼 때, 겉으로는 화려하고 분주했지만 정작 마음은 텅 비어 있다고 느낀 순간이 있었나요? 반대로 소박하지만 ‘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’ 하고 느꼈던 순간이 있었나요? 편안하게 한 가지씩 나눠 봅시다.

◆ ② 함께 찬양 (5 분)

1. 새찬송가 8장 「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여」

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마음을 엽니다.

2. 새찬송가 545장 「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어도」

보이지 않아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부릅니다.

◆ ③ 말씀 읽기 (5 분)

본문 열왕기상 8:1-11을 한 사람씩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습니다. 특히 5절(셀 수 없는 제사), 8절(채는 오늘까지 그곳에), 11절(여호와와 영광이 가득 참)에 밑줄을 그어 봅시다.

열왕기상 8:5, 8, 11 (요약)

5...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는데, 그 수가 너무 많아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었다.

8... 그 채는 오늘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.

11... 이는 여호와와 영광이 여호와와 성전에 가득 찼기 때문이다.

◆ ④ 말씀 나눔 (25 분)

Q1. [관찰] 5절에서 솔로몬과 회중은 셀 수 없이 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. 이 예배가 기쁨과 감사에서 나온 것일 수도, 두려움과 의무감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. 본문의 분위기는 어느 쪽에 가깝게 느껴지나요? 왜 그렇게 보이나요?

↳ 인도 도움말 : 옷사의 죽음(삼하 6장)의 기억, '심판을 면하려는 열심'(롬 10:2-3)을 떠올리게 해 주세요. 정답보다 각자의 관찰을 존중합니다.

Q2. [해석] 8절은 언약궤의 '채'(이동용 막대기)가 오늘까지 그대로 있다고 굳이 강조합니다. 목적지에 도착했는데도 채를 빼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?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말해 줍니까?

↳ 인도 도움말 : '관하지 않으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'(행 7:48), 요 1:14 '장막을 치셨다'로 연결해 주세요.

Q3. [해석] 9절, 궤 안의 두 돌판(그리고 만나·아론의 싹 난 지팡이)은 사실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는 증거물입니다.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것을 부수지 않고 간직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?

↳ 인도 도움말 : '우리의 불신실에도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심'(딤후 2:13)과 속죄소 위에 뿌려진 피(롬 3:25)로 이끌어 주세요.

Q4. [해석] 10-11절에서 그 웅장한 건물을 비로소 '성전'이 되게 한 것은 무엇이었나요? 화려한 건축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?

↳ 인도 도움말 : '카보드=무게=영광=임재'. 임재가 성전을 만든다는 핵심을 함께 정리합니다.

Q5. [적용] '샬꾼의 예배'와 '자녀의 예배'(롬 8:15)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솔직히 요즘 내 신앙생활은 어느 쪽에 더 가깝나요? 두려움과 의무감에서 벗어나 감사로 나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?

↳ 인도 도움말 : 판단하지 말고, 각자 정직하게 나눌 수 있도록 안전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.

Q6. [적용] '채를 빼지 않는다'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당에만 두지 않고 삶의 자리로 모시고 나가는 것입니다. 이번 한 주,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모셔 가고 싶은 '나의 광야'는 어디인가요? (가정·일터·관계·건강 등)

↳ 인도 도움말 : 구체적인 자리를 한곳 정하게 하고, 그 자리를 다음 주에 함께 나누도록 격려해 주세요.

◆ ⑤ 삶으로 (5 분)

◆ ⑥ 합심 기도 (10 분)

1. 은혜로 드리는 예배

샅꾼의 두려움을 내려놓고, 자녀의 감사로 예배하고 섬기게 하소서.

2. 채를 빼지 않는 동행

각자가 정한 '나의 광야'로 주님의 임재를 모시고 나가게 하소서.

3. 영광을 갈구하는 새 달

세상의 잣대를 내려놓고, 영광이 임재하는 삶을 사모하게 하소서.

서로의 '나의 광야'를 한 가지씩 나눈 뒤, 옆 사람의 제목을 품고 돌씩 짊어 기도합니다.

◆ 마무리 · 축복 기도

채를 빼지 않으신 주님, 이 셀의 지체 한 사람 한 사람과 이번 한 주간 함께 걸어가 주옵소서. 각자의 광야에 주님의 영광이 임하여, 우리 모두가 영광이 머무는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
